



여수 김석철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완도 김광수



장성 방정모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 생태관광 힐링 도시 순천 관광객 1000만 시대 눈앞

순천만국가정원 611만 · 낙안읍성 103만명 방문



자연과 생태정원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국가정원 1호,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등 유명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시장 조충훈)가 지난해 906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는 2016년 791만명 대비 14.5%인 11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관광지별로는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포함) 6백117천명, 낙안읍성1백35천명, 드라마촬영장 737천명, 선암사 291천명, 송광사 172천명 순으로 방문했다. 큰폭으로 증가한 곳은 낙안읍성이 전년도 866,056명 대비 19.5%, 드라마촬영

장 14.2%, 국가정원 12.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 및 습지의 경우 시화산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21일부터 잠정 폐쇄되었으나 봄꽃 축제, 여름 불빛축제, 가을 정월달 대축제, 겨울 별빛축제 등 차별화된 4계절 축제와 행사개최로 지난 12월 24일 관광객 600백만명을 돌파했으며 낙안읍성의 경우는 4년만에 방문 관광객 100만명을 회복하는 등 계절별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관광객 눈높이에 걸맞은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유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순천시는 관광객 900만명

목표달성을 위해 그동안 순천만국가정원 4계절 축제 외에 시내권을 중심으로 생태문화 융·복합 축제인 푸드엔 아트페스티벌 개최, 한여름 밤을 수놓은 달빛야행, 세계적인 석악가와 함께한 정월 교향악축제, 국제환경미술제, 한평정원 페스티벌, 세계동물영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지역 곳곳에서 펼쳤다.

그 외에도 순천을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관광택시 도입 운영, 치유 및 힐링의 도시에 걸맞은 헬스케어 운영 등 타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출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젊은 여행객들을 위한 한여름 치맥파티, 청춘참고, 청춘웃장, 아랫장 야시장 연장운영 등 체류형 관광객 유입증대를 위해 다양한 관광 정책들을 펼쳐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관계자는 "관광객 천만 시대 대비 순천시민의 차별화된 컨텐트 발굴과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상품 등을 개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019년을 '순천 방문으로 해' 로 정하고 올 해는 순천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및 홍보 기반구축 등 순천방문의 해 준비에 역점을 두고 관광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정현복 광양시장, 무술년 첫 현장 행정활동 펼쳐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 대상지와 중소기업 방문

정현복 광양시장이 무술년 새해를 맞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첫 번째 현장행정의 날을 가졌다.

이날 정현복 시장은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 대상지와(쑤태운, 쑤에어리스 등 중소기업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정 시장은 먼저 그동안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꼈던 광양을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 대상지를 찾아 덕례리 대립아파트에서 광양시장에인 종합복지관 구간 골목길과 오성아파트

트 앞 회암 삼거리 도로를 둘러봤다.

또 노후화되고, 균열이 발생해 재포장이 필요한 덕례사거리에서 세송교차로로 이어지는 도로도 점검했다.

이어, 중마동으로 이동해 마홀마을 사거리에서 중마시장 도로구간, 길호대교에서 제철1문 구간, 금호대교에서 광영하수처리장까지 구간의 도로 상태를 차례로 점검했다.

현장을 확인한 정 시장은 관계부서에 차량 통행량과 노후화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 재포장 대상지를 선

정하고, 시민들이 도로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POSCO 광양제철소 내에 입주한 (쑤태운과 태인동에 소재한 (쑤에어리스를 차례로 방문한 정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체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살기 좋은 광양에서 거주하기를 간곡하게 당부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 나주시, 중소기업인 경영난 해소 위한 지원사업 추진

나주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이차 보전 지원사업과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및 이차 보전 지원사업'은 경영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나주시에 융자 신청(최대 4억 원,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을 하면, 시에서 관련 서류 검토 및 적격 여부를 판단, 신청액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해당 업체를 융자 추천 해준다.

융자추진을 받아 대출을 실행한 업체에게는 최장 2년 기간 동안 융자금 이차 2%를 지원(이자 보전)함으로써 융자금 상환에 소요되는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기업 매출액 증대를 위한 판로개척과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추진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체제비를 제외하고, 기업 당 2백만 원 한도에서 참가 직접 경비인 기본부스 임차료 최대 80%, 시설구축비 최대 60%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을 선정, 지원금을 교부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 전까지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들러, 2개 사업에 대한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납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나주시 공고 제 2018-5호, 제2018-6호)를 참조하거나, 일차리정책실 기업육성팀으로 문의(☎339-8293, 8291)하면 된다.

## 광양시, 'OK생활민원기동대' 해결사 역할 특출

지난해 총 656건 정비·전기·수도시설, 소규모 집수리 등 지원



광양시가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 속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OK생활민원기동대'가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결사로 역할을 특출히 하고 있다.

2014년 6월부터 시작해 전담인력 2명으로 구성된 'OK생활민원기동대'

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과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 시설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또 자체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가구, 장애인, 여성가구 등 취약계층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직접 찾아가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는 전기 378건, 수도 55건, 난방 7건, 도배, 정관 수리 등 소규모 집수리 151건, 공공복지시설물 65건 등 총 656건을 처리했으며, 접수건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74%를 차지할 정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재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질 높은 서비스 지원과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시민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며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질 높은 대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 화순군,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민 교통편익 제공

화순을 유창1차~송강사우나 구간 준공 등

화순군이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화순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8억원을 들여 2015년 착공해 3년 만에 유창1차~송강사우나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최근 개설했다.

도시계획도로(소로2-47호선) 유창1차아파트~송강사우나 구간은 총 연장 175m, 폭 8m로 2차선 도로다.

군은 이와 함께 민원저수지 도시

계획도로와 한국아델리움~대성베르힐 구간 도시계획도로를 각각 38억원과 11억원을 들여 올해 개설할 계획이다.

한국아델리움~대성베르힐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2016년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해 편입토지 22필지에 대해 지난해 9월 보상을 마무리하고, 최근에 계약심사를 마쳤다.

총연장 273m이며 폭은 8m로, 작년 12월에 착공, 오는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편익 증진으로 한국아델리움 등에 거주하는 주민 3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국아델리움~대성베르힐 구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